



신명을 다하였습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11월 24일 해인총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원로의원 인환 정관 월탄 암도 스님,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원로의원 중하 근일 스님 등 스님 7명에게 대종사 법계를 폄서했다. 2004년과 2008년 대종사 법계 폄서에 이어 세번째로 열린 이번 법계 폄서식을 통해 수지된 대종사는 총 35명이다. 설정 스님(사진 좌)과 중하 스님(사진 가운데)이 이날 받은 대종사 가사를 정대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종교평화선언 발표 무산

11월 29일 선언 발표식 앞두고, 초청장까지 발송했으나
종정 법전 스님 '면밀한 검토' 주문에 연기...수정 불가피

조계종 결사본부가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최종본 발표를 계획하고 발표식 초청장까지 발송했지만 종정 스님의 재검토 지시로 연기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법계 폄서식 참석을 위해 해인사를 방문한 11월 24일 종정 법전 스님에게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법전 스님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재가를 내리지 않았다.
결사본부는 당초 24일 오전을 종교평화선언 최종안 수정을 위한 의

선언 발표식을 예정하고, 정치권 등 각 계에 초대장을 발송한 중단은 급히 발표식을 취소했다.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는 25일 "종교평화선언 관련 종정 예하의 뜻을 받들며"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결사추진본부는 "종정예하께서 종교평화선언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주셨다. 종정예하께서는 종교평화 선언 취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다. 그러나 더 널리 의견을 구하고 발표 시기도 검토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다. 29일 예정된 발표식 행사는 부득이 연기한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또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내부 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조계종, 소통 대신 '호통'

소통 외치면서 정작 일방통행

소통과 화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총무원장 자승)에 권위주의적 총무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은 개정된 '신도단체등록및관리령'에 따른 신도단체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포교원은 신도연합단체와 직장직능단체 등 16개 단체들에게 2012년 1월 5일까지 신도단체등록을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비판기사 아닌 언론사에 대응 내부 문제 비판 자원봉사자에 자격 및 활동정지 5년 징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도단체들과의 견해 차이로 논란을 빚고 있다. 포교원이 신도단체 등록시 단체 회칙 및 정관에 '대한불교 조계종' 명칭 사용과 포교원장의 당연직 총재 권한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총재는 해당 단체의 회장·감사의 임명권과 지도감독권을 갖기 때문에 단체들은 포교원의 규제와 간섭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신도단체에 조계종이 아닌

타 종단 신도들도 활동 중이기 때문에 조계종 명칭 사용 의무화는 내부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각 단체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엮갈리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신도단체 한 관계자는 "불교를 하므로 생각하고 범종단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 설립 취지인데 포교원의 방침은 당혹스럽다. 신도단체로 등록하고 나면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포교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신도단체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포교원의 입장이다. 포교원은 그동안 각 단체들이 주요 행사 때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과 교구본사에 제 각각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도단체로서의 효과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왔으나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유택 포교원 신도팀장은 "조계종 신도단체라는 명분이 명확해야 지원 근거도 명확해진다. 단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 내쫓겠다는 것은 아니다. 포교원장스님의 당연직 총재는 사고단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단은 또 총무원장에 대해 비판적 내용을 게재한 교계 언론에 대해 폭언을 하는 등 비상식적으로 대응해 '소통과 화합'을 지향한다는 말을 무색케 했다.

불교포커스는 10월 30일 '불교, 정부의 수족이 될 건가?'의 기사에서 종단의 정부 예산 의존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불교포커스는 조계종 핵심사업의 대부분이 정부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보도 후 종단은 기사에 대한 평가 발언을 하는 등 반발했고, 해당 기사와 동일한 기간 내 게재할 것을 요구하며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불교포커스는 종단의 대응이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올바른 언론관 회복을 촉구했다. 종단은 18일 기획실장 정만 스님 명의의 공문을 불교 포커스에 발송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처럼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총무 행정은 재가자를 출가자의 관계로 평등이 아닌 수직 관계로 이해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내부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가 징계계를 받은 자비의

전하 김선희 상담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선희 상담원은 자비의 전하가 내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주장하며 인터넷 주권방송 등에 출연해 문제를 공론화 하고, 포교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종단은 10월 25일 총무원장 방회와 삼보 비방 등의 사유를 들어 김선희 상담원에게 5년 간의 정화원 자격정지 및 활동정지라는 징계계를 내렸다.

김선희 상담원의 징계 소식이 전해지자 불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단자정센터는 24일 '출가자와 재가자의 역할 정립 이대로 좋은가'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징계가 부당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출가자와 재가자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단자정센터는 "건전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자원봉사자를 징계하는 것이 과연 불교적 해결책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징계는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종단이 재가자의 역할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외국인들, 조계사보다 남산타워 선호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실시 선호 체험에 템플스테이 없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가장 체험해 보고 싶은 콘텐츠에 불교문화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1월 3~20일 1849명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어느 명소와 어떤 체험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95명(16%)의 외국인들이 '남산 N서울타워에서 연인과 자물쇠를 걸고 키스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명동에서 한국 화장품 쇼핑 투어'가 13.4%(247명)로 2위를, '경복궁에서 수문장 교대식 보고 복식 체험하기'가 10.9%(201명)로 3위를 차지했다. 상위 20위 안에서 불교와 관련된 체험 및 명소는 선정되지 못했다.

다만 조계사와 인접한 '인사동에서 전통 물건 쇼핑하고 전통차 마시기'가 8위, 천년고찰인 강남 봉은사 근처의 '코엑스 전시와 아쿠아리움 둘러보기'는 2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사결과는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윤영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장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서울권 사람들은 숙박시설가

864호 CONTENTS

종단	2
진각종 11대 성초 총인 취임 전국비구대회 회장 명우 스님 취임	
사회	3
조계사에서 SK행복나눔 김장 행사	
불교종흥을 위한 대토론회	4
현장속으로	5
조계종 대종사 폄서식	
나눔	6
한마음선원수계법회 김홍국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동국 지성콘서트 박경철	13



한마음선원수계법회 김홍국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능인당
능인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mhwa.com

대한불교원효종 재교부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종도님들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제반 일들이 부처님의 자온으로 원만회향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각 신문사를 통하여 수차례 재교부 공고를 하여 현재까지 등록하신 종단 소속원을 잠정적으로 집계하였습니다. 하오니 아직 재교부를 받지 않은 종도들이 다수 있어 이에 총무원장의 질서를 재정비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재교부 공고를 하오니 기간내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승려증 또는 신분증
- 접수기간 : 2555(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2011년 12월 30일 우체국 소인(접수)분까지 유호)
- 접 수 처 : 각 교구종무원
- 문 의 처 : 02)735-0501, 0502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합장